

여성 관객
만족도 1위

MUSICAL

HUNKY Show

오직 여성만을 위한 LADIES PARTY!

엄마와 딸, 동료, 그리고 현실에 지친 모든 여성들에게
유쾌하고 핫한 바텐더들이 특별한 밤을 선사합니다!



HUNKY
SHOW
보러가기



더 sexy하고 화려하게 돌아온 화이트 코미디 뮤지컬
2025.4.25 - 8.31 스타스테이지

문의 | 주식회사 아트컴퍼니
070-4287-0258

<헝키쇼 실제 후기>

● k9872**님

★★★★★

어머니께 찐 효도하고왔어요!!^^

와~ 진짜 그런 찐 행복한 표정 처음 봤습니다.
엄마가 공연 끝나고 저에게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효도 다 했다!! ㅋㅋ 너무 고마워 ㅋㅋㅋㅋㅋㅋ
엄마도 여자라는 사실!!^^

● arri***님

★★★★★

눈호강 제대로 하고온 날!!!!!!

어머니께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남겨드렸습니다.
엄마랑 이런 뮤지컬 관람나...? 싶었는데
안봤으면 죽을때까지 땅 치고 후회할 뻔!!!

● queeno***님

★★★★★

스트레스 뺏!! 도파민 엔돌핀 뽀뽀!

최근들어 이렇게 웃어본적이 언제인가 싶네요.
너무 웃어서 눈물까지 났어요. 관객참여형이라 더 좋았고
열정적인 춤사위는 아이돌가수의 춤을 보는듯 했어요.

● louk***님

★★★★★

헝키쇼, 상상을 초월하네요

사실 젊은 친구들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시누이와 형님,
엄마와 딸, 다양한 연령대! "내 엄마도 여자다!" 그말에
참 많은 생각을하게했던공연이었습니다.
미친 퍼포먼스로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라면 가격 인상은 ‘기만적 마케팅’



이 정 혁
西村브리핑

얼마전 퇴근 길에 아내가 출타중이어서 저녁에 라면이나 끓여먹을 생각에 집 근처 편의점을 찾았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라면 한 개 2000원 한데 진짜예요?”라는 발언도 해서 라면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도 궁금하던 차였다. 편의점 매대에 진열된 라면들을 보니 농심 푸팟 품구리큰사발, 오투기 열치즈라면 대컵, 삼양식품 탕글 등 일부 컵라면 등이 2000원 이상에 판매되고 있었다.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신라면과 진라면은 1000원, 너구리는 1150원, 안성당면과 삼양라면은 각각 950원과 910원, 불닭볶음면은 1250원에 팔리고 있었다. 신라면 더레드 1500원, 신라면 블랙 1900원, 참깨라면과 스낵라면, 킹뚜껑은 1800원이었다. 라면이 처음 나온 1963년 9월 삼양라면 가격이 10원이었던 것을 비교하면 62년만에 100배 이상 오른 것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를 보면 라면값은 1년 전보다 6.2%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의

3배 이상이였다. 지난 3월 농심이 대표상품 신라면의 출고가를 5% 올린 걸 시작으로 오투기, 팔도 등이 잇따라 라면 가격을 인상한 영향이다. 커피, 초콜릿, 아이스크림, 과자 등 가공식품 전반으로 가격 인상이 번지며 지난달 전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4.1%에 달했다. 지난달 가공식품 74개 품목 가운데 70%가 넘는 53개 품목이 6개월 전보다 가격이 뛰어 오른 것이다. 과거에도 국제 곡물가나 환율 급등 등으로 가격이 오른 경우가 있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원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인상은 이례적이다. 계엄부터 탄핵, 대선에 이르는 정국 혼란 시기를 틈타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한 측면이 다분하다. 우리 국민들은 1인당 한해 평균 74.1개의 라면을 먹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듯이 라면은 한국인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짜장면과 함께 이른바 ‘소울 푸드(Soul Food)’라 할 수 있다. 라면이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00분의 2.4에 불과할 정도로 가계에 끼치는 영향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 먹거리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가격에 상당히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이 대통령이 라면 가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대통령의 발언 속내는 라면 가격을 비유해서 전반적인 먹거리 물가가 뮴 것을 지적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라면 업계의 가격 인상 이유와 시기를 보면 ‘그리드플레이션(Gridflation·기만적 마케팅)’이라고 비판받기에 충분하다. 그리드플레이션은 별다른 가격 상승 요인이 없는데도 기업이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를 일컫는다. 그동안 식품업계는 원재료 가격이 오를 때는 즉각 제품 가격을 인상하다가 원재료가 하락할 땐 인하를 미루거나 외면했다. 아니면 포장과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방법을 쓰곤 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정부의 세제 혜택과 지원을 받으며 가격 안정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공백기에 소비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긴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식품업계의 무분별한 가격 인상을 자제시키는 동시에 기업간 담합이나 유통구조 왜곡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ljh@metroseoul.co.kr

새 정부와 대출난민



김지수협
김 정 산
(금융부)

이재명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적한 과제를 차근차근 해결하고 있다.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을 거머쥔 것은 국민들이 거는 기대감이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일주일이 막 지난 시점, 국정 안정에 힘입어 ‘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주식시장에는 간만에 훈풍이 불고 있다. 그야말로 단비가 따로 없다. 반면 저축은행과 카드사, 대부업권 등은 긴장감이 확산하고 있다. 새 정부가 법정최고금리(연 20.0%)를 연 15%로 인할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면서다. 업계에서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 ‘대출난민’

이 대거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불법사금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이란 목소리다. 대출금리는 금융사별 조달금리에 차주별 환급능력에 따른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신용점수가 높으면 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중저신용차주는 이자 부담이 더 크다는 의미다. 카드사와 저축은행은 은행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 자금을 수급한다. 주이용고객은 자금 변동성이 큰 소상공인이 주를 이룬다. 지난달 기준 주요 카드사 8곳이 신용점수 700점 이하 회원에게 적용한 카드론 평균금리는 연 17.53%다. 카드론은 2금융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신용점수가 넉넉한 차주가 이용한다. 법정최고금리 연 15%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목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총 6만3187건의 피해·신고·상

담을 접수했다. 그중 4만7790건은 단순 문의 상담, 1만5397건은 피해 신고 상담이었다. 불법 대부 관련 신고는 연간 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법채권추심은 48.5% 상승했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급전을 마련하다가 빠져나오기 어려운 굴레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신고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란 입장이다. 십수년전부터 폭력을 동반한 반사회적 추심 행위는 꾸준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2금융권은 취약차주에게 제도권 대출을 내주는 ‘마지노선’ 역할을 한다. 법정최고금리에 육박하는 이자를 내더라도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법정최고금리 인화와 2금융권의 생존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바로 ‘연동형 최고금리제’다. 금리 변동에 따라 법정최고금리를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것이다. /kimsan119

오늘의 운세6월 13일 (음 5월 18일)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배우자가 있어도 마음이 공허하다. 48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자 중할 때. 60년생 노력한 자만이 찬란한 새벽을 본다. 72년생 선행을 하니 열 배로 돌아온다. 84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소

37년생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떠 있음을 잊지 마라. 49년생 재물로 인한 갈등이 있으나 나에게 유리. 61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를 내 일을 추진. 73년생 어둠이 깊을수록 밝은 더 반짝인다. 85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를.

 호랑이

38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즐거운 하루. 50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 사랑. 62년생 시작됐으니 추진하여 성과를 내도록. 74년생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행동. 86년생 지속성이 부족하니 공부로 채우도록.

 토끼

39년생 남은 노후를 위해 기술을 배워보도록. 51년생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63년생 숨겨진 실력을 인정받는다. 75년생 가슴 벅찬 행복한 일이 생긴다. 87년생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만나게 되는 이치.

 양

40년생 노력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52년생 날씨가 따뜻하긴 하지만 밖으로 나가지 마라. 64년생 물을 두려워하면 수영선수가 될 수 없음을 인식하도록. 76년생 원하는 바가 없으니 얻을 것도 없다. 88년생 혼자여도 기도하니 외롭지 않다.

 뱀

41년생 현명한 사람은 늘 공부하는 사람. 53년생 두 갈래 길에서 망설이게 된다. 65년생 길이 끊긴 곳에서 새로운 여행이 시작된다. 77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다는데. 89년생 힘든 일이 오히려 되면 풀리기 시작한다.

 말

42년생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54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66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니 쪽빛보다 더 푸르다. 78년생 사랑인지 망상인지 잘 판단하도록. 90년생 모두 가질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해야.

 양

43년생 결과가 좋아야 과정도 좋은 평가를 받는 법. 55년생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67년생 하나씩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다. 79년생 로또가 되려면 복권을 사야만. 91년생 평소애 늘 보던 사람도 오늘은 달라 보인다.

 원숭이

44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니 기쁨이 넘친다. 56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도 좋으니 전진. 68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이성 만남을 주의. 80년생 금전 문제로 배우자와 의견충돌이. 92년생 가까운 사이일수록 약속을 더 잘 지켜야.

 닭

45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좋다. 57년생 흐지부지될 수 있으니 명확한 문서로 남겨라. 69년생 좋은 결과는 신용과 기다림에서 나온다. 81년생 무더위가 찾아도 부채는 잘 보관. 93년생 우는 아이는 젖을 뱉더라도 달래는 게 순리.

 돼지

46년생 지는 일을 보면 내 신세를 보는 듯. 58년생 주인공은 당신이니 무슨 일든 참여. 70년생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실수가 적다. 82년생 결혼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한 단계씩. 94년생 서두르지 말고 도장 찍을 일이 있다면 잠시 미루고.

 돼지

47년생 친척이 방문하니 불청객이다. 59년생 기대를 많이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해야. 71년생 간발의 차이로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83년생 마음만 바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95년생 배우자는 나보다 학식이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니.

김상회의四季

윤년과 윤달



윤년(閏年)과 윤달에 대해 보통 윤달이 든 해를 윤년이라고 알고 있는 정도일 것이다. 윤년은 과년(年)이라고도 하는데,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확히 말하면 365일이 아니라 365.2422일이다. 대략 1년은 4년마다 1일씩 오차가 발생한다. 오차를 바로잡기 위해 윤년이 드는 해에는 2월에 낱짜를 하루 더 추가하는데 이것이 태양력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윤년이란 그레고리력에서 여분의 하루인 2월 29일을 추가하여 1년 동안 낱짜의 수가 366일이 되는 해를 말한다. “고 우리나라 천문법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윤달 또는 윤월(閏月) 역시 태음력에서 자연의 흐름과 생길 수 있는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도입하는 음력의 달로 원리는 윤년과 비슷하다. 음력은 달이 기준이 되므로 달이 지구를 열두 번 도는 데 걸리는 354일이 태양년의 1년 기준인 약 365.2422일과 비교해서 1년 기준으로 11일이 빨라진다. 이렇게 계속 돌면 음력과 태양년 간 차이가 벌어지면서 태양력과 태음력 사이의 계절 간극이 커져서 계절 현상이 전혀 맞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음력과 태양년 간 차이가 한 달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음력에 낱짜를 더 넣어줘야 한다. 우리나라 역시 달 모양에 따라 29일을 한 달로 하는 작은달과 30일을 한 달로 하는 큰 달을 번갈아 놓고 12개월 354일을 한 해로 설정한 뒤, 한 달과 같은 길이로 구성된 윤달을 추가해 지구의 태양 공전주기와의 오차를 없애는 태음태양력을 썼다. 이 역법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음력’이다. 주역과 같은 음양오행서에서는 자연순환법칙을 인간의 삶과 만사에 적용해 피흉취길(避凶取吉)의 지혜를 알려주는데, 윤년과 윤달은 지구라는 행성의 운명 해와 달의 간극을 줄이는 표시자이다. 일월성신이 역(歷)이고, 역의 표시자가 해와 달이라는 얘이기도 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미국 와인의 전설 ‘스택스 립’… 대담하고 우아하게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우아한데 대담하다. 아니 반대다. 잘 익은 미국 나파밸리 카베르네 소비뇽의 대담함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우아하다. 포도송이를 한 입 가득 깨어문 듯 과즙이 가득하면서 절제되어 있고, 풍미는 섬세하면서 복합적이다. 50년 전 ‘파리의 심판’ 심사위원이든, 2020년대에 한 잔을 받아든 소비자든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여운은 길다. 지금 바로 마셔도, 10년쯤 뒀다 마셔도 좋겠다. 미국 나파밸리의 전설적인 와이너리 스택스 립 와인셀라의 카베르네 소비뇽이다.

스택스 립 와인셀라의 헤드 와인메이커 마커스 노트라는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와인의 스타일은 따로 구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포도밭의 특성과 잠재력을 가능한 드러내는 것”이라며 “스택스 립의 와인은 다양한 풍미가 복합적이며, 우아함과 구조감의 균형을 세련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3년부터 스택스 립의 와인메이킹을 맡고 있다.

1970년에 설립된 스택스 립은 초기엔 작은 가족 와이너리에 불과했다.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것은 1976년 그 유명



스택스 립 와인셀라의 헤드 와인메이커 마커스 노트라는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스택스 립의 S.L.V, 페이(FAY) 포도밭과 테루아, 양조 철학 등을 소개했다.

한 ‘파리의 심판’에서 우승을 하면서다. 설립 후 6년 만인 신생 와이너리가 3년 차에 만든 ‘S.L.V. 카베르네 소비뇽’ 1973 빈티지가 보르도 특급 와인인 ‘샤토 무통 로칠드’와 ‘샤토 오브리옹’을 모두 제쳤다. 이는 스택스 립 와인 셀라는 물론 미국 나파밸리를 세계 최고의 카베르네 소비뇽 산지로 만들었다. 당시 우승했던 S.L.V. 카베르네 소비뇽은 스미 소니언 박물관의 영구 소장품이자 ‘미국

을 만든 101가지’ 중 하나로 선정됐다.

스택스 립은 이탈리아 와인 명가 안티노리에 인수되면서 다시 한 번 이목이 집중됐다. 2023년부터 시작된 인수 작업은 올해 마무리를 지었다. 국내에서도 수입사 아영FBC가 스택스 립 와인을 공식 론칭했다.

이제 스택스 립의 전설적인 카베르네 소비뇽 열전이다.

먼저 ‘페이(FAY) 카베르네 소비뇽’



(위)레드 와인으로는 아르테미스 카베르네 소비뇽 2021, FAY 카베르네 소비뇽 2020 등, 화이트 와인으로는 ‘카리아 샤르도네 2023’, ‘아베타 소비뇽블랑 2023’ 등을 선보였다. /안상미 기자

과 ‘S.L.V. 카베르네 소비뇽’이다. 페이와 S.L.V.는 같은 품종에 포도밭도 나란히 붙어 있지만 개성은 완전히 다르다. 페이가 우아한 숙녀라면 S.L.V.는 진중한 신사다.

FAY 카베르네 소비뇽 2020은 붉은 과실과 장미 등 꽃향이 우아하고, 복합적인 풍미가 인상적이다. 2020 빈티지가 다른 해보다 좀 더 힘이 있다고 하는데도 부드럽고 향기롭다.

FAY는 스택스 립 디스트릭트에서는 처음으로 카베르네 소비뇽을 심었던 네이든 페이를 기리는 의미다. 이 지역은 나파밸리에서도 기후와 토양이 독특해 포도재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지만 네이든이 흙 속의 진주를 캐냈다.

S.L.V. 카베르네 소비뇽 2020은 검은 과실과 흑연의 미네랄, 흙내음 등 강건하면서 복합적인 아로마가 특징이다. 페이보다 좀 더 구조감이 단단하고 진중한 스타일이다.

마지막은 ‘캐스크(CASK) 23 카베르네 소비뇽’이다. S.L.V와 페이 빈야드에서도 최상급 포도만을 선별해 만들었으니 소위 ‘끝판왕’인 셈이다. 그것도 포도 재배가 뛰어난 해에만 만든다.

CASK 23 카베르네 소비뇽 2021은 페이 포도밭의 향긋함과 S.L.V의 구조감, 과실미를 모두 가졌다. 블랙 체리와 삼나무, 향신료, 모카 등 복합적인 향이 겹겹이 펼쳐지며, 맛은 풍부하고 농축됐다. 부드러운 질감과 함께 여운이 한참을 이어진다.

아영FBC 관계자는 “스택스 립 와인 셀라는 단지 하나의 와인 브랜드가 아니라 미국 와인의 기원을 보여주는 정체성 그 자체”라며 “이번 론칭은 미국 프리미엄 와인 포트폴리오에 지속적으로 정성을 쏟은 결과이며, 국내 와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말했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강서 대형 복합시설 ‘원그로브’ 개관

12일 서울 강서구 마곡 원그로브에서 ‘원그로브 그랜드 오픈’ 행사가 열리고 있다. 원그로브는 마곡지구 약 27만명의 지역민을 비롯해 마곡산업단지과 기업 종사자들의 비즈니스와 휴식, 여가를 책임질 복합시설로 초대형 크기를 자랑한다.

/손진영 기자 son@

핑크퐁 아기상어, 싱가포르 간다… ‘키즈 팝콘 아시아’ 단독 초청

더핑크퐁컴퍼니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에서 열리는 ‘K!DZ POP CON ASIA 2025(이하 키즈 팝콘 아시아)’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 콘텐츠 기업으로는 유일한 공식 초청이다.

‘키즈팝콘아시아’는 디즈니, 니켈로디언, 크레올라 등 세계적인 캐릭터 브랜드가 한자리에 모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키즈 패밀리 페스티벌이다. 올해 행사는 싱가포르의 대표 랜드마크인 마리나베이 샌즈 컨벤션 센터에서 오는 21일부터 22

일까지 열려, 글로벌 IP 업계 이목을 끌고 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K콘텐츠 대표 주자로서 이번 행사에 참가해, 대표 IP ‘핑크퐁 아기상어’ 1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가로 15m, 높이 5m 규모의 슬라이드 어드벤처를 포함해 캐슬 트램펄린, 어드벤처 보트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주말은 책과 함께

‘AI 윤리’ 경계를 묻는 안내서

판사가 흉악 범죄자에게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분노하며 말한다. “판사들을 다 인공지능(AI)으로 바꿔야 한다”고. AI 판사는 인간 판사보다 더 공정할까. ‘도덕적인 AI’는 이러한 질문을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저자는 기술을 얼마나 낙관적으로 보든 간에 AI 시스템이 완벽하게 공정하거나 정의로운 가능성은 (인간처럼) 거의 없다고 말한다. 책에 따르면 의료와 채용, 주택 용자, 사업자금 대출 등에 활용되는 AI는 흑인, 여성, 이민자, 빈곤층, 장애인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피부암을 탐지하는 AI는 어두운 피부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AI에 의존하는 의사들이 흑인 환자를 제때 진단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범죄 예측 AI는 취약 계층 출신 피고인의 보석 신청이나 재판 전 석방을 거부할 가능성이 더 크다.

‘지능적’이라고 칭송받는 AI가 이처럼 편향된 결과를 내는 까닭은 기술 창작자(인간)의 편향이 개입돼서라고 책은 분석한다.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라벨링할지, AI 모형의 성능을 어떻게 평가할지, AI 알고리즘에 어떤 정보를 넣을지, 예측 결과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결정은 모두 인간의 손에 달렸다.

예를 들어 경찰이 특정 인종을 면밀히 감시해 해당 집단에서 더 많은 이들을 불균형적으로 체



도덕적인 AI

윌터 시넬라스트롬, 제나 세익 보그, 빈센트 코니처 지음
박초월 옮김/김영사

포하면, 이를 학습한 AI 시스템이 소외된 인종 집단에 속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재범 위험도를 부여한다. 사회 구조와 경찰 수사 절차의 편향은 AI 학습용 데이터의 편향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AI 알고리즘이 특정한 취약계층 구성원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높은 재범 위험도를 예측하게 한다.

저자는 AI가 편향된 결과를 내는 이유는 인간이 편향된 데이터를 입력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안전하고 윤리적인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이 먼저 ‘도덕 지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360쪽, 1만9800원.

/김현정 기자 hjk1@



▲배구 김연경·골프 정윤지, MBN 여성스포츠포스트 상 4·5월 MVP

▲양키스 저지, 시즌 25호포 폭발…홈런 선두 시애틀 롤리와 1개 차

/사진 뉴시스

▲K리그1 강원, 홈 경기장 명칭 변경…‘강릉하이원아레나’

▲장애인체육회, 중국·일본 패럴림픽위원회와 M OU 체결

▲‘파리 금메달’ 오예진·양지인, 사격월드컵서 은메달·동메달

▲국립중앙도서관, ‘구독 전자자원 박람회’ 개최…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NS홈쇼핑
뉴파머스 레스토랑
청년농부 판로개척
L1

metro®

Life

풀무원다는
체온활동 유산균
기능성 발효유 선배
L2



풍경 담은 작품... 모험의 놀이터... 단지에 펼쳐진 동화 속 세상

아파트의 미학(美學)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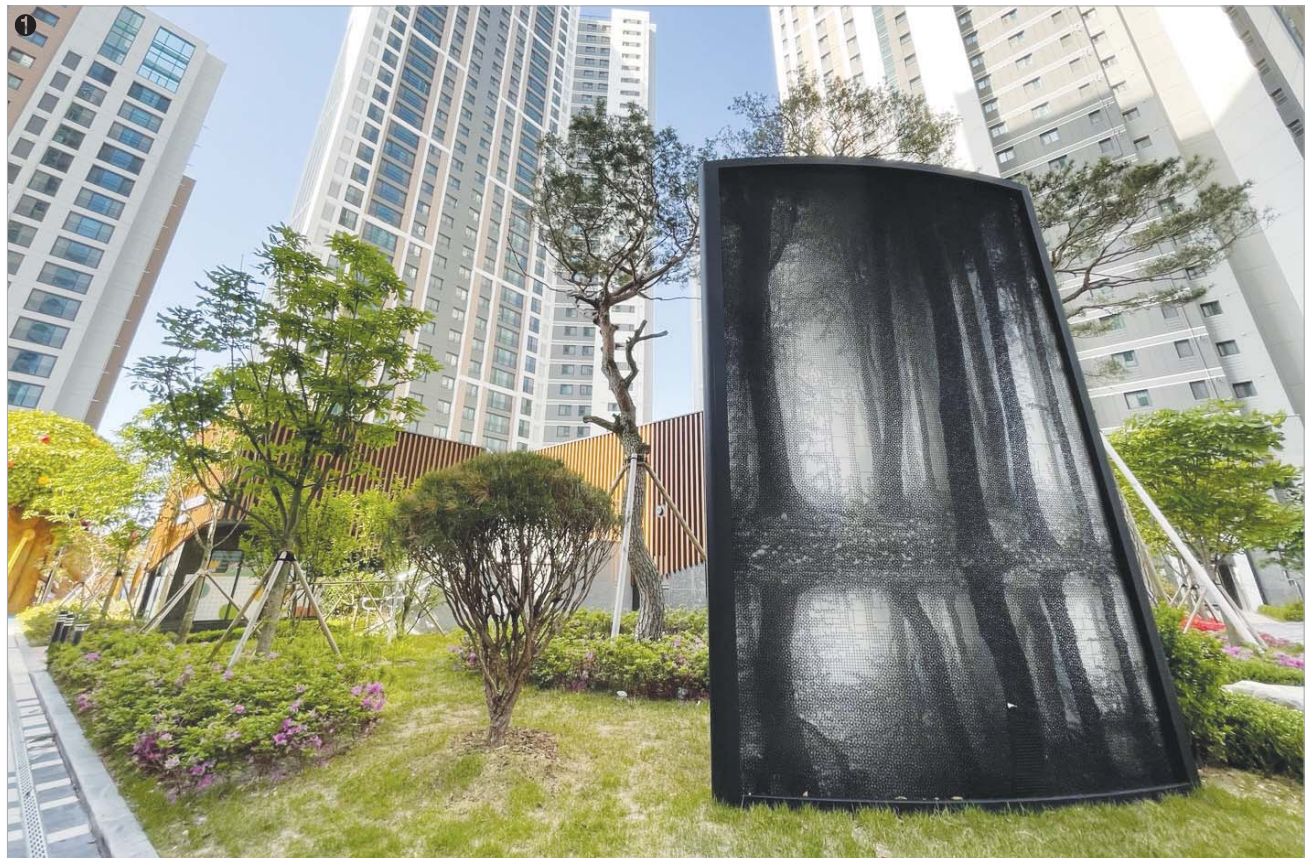
대형 쇼핑시설·교통망 갖춘 1558가구 단지
세련된 아파트에 생기 불어넣는 조경 눈길

풍경 담은 작품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
소나무 둘러싸인 수경 중심의 '중앙광장'도

에버랜드 조경팀 설계한 놀이터 특별함 더해
판다월드, 매직트리 등 환상 속 놀이터 구현

- ① 단지 중앙에 설치된 박승모 작가의 작품 '환'.
- ② 연못 옆 자리잡은 작품 '호수의 풍경'.
- ③ 판다월드 테마로 만든 놀이터.
- ④ 로스트밸리 놀이터.
- ⑤ 에버랜드 특화 '매직트리' 놀이터.

/전지원 기자



최근 찾은 대전 서구 도마동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했다. 고속철도(KTX) 서대전역에서
119번 버스를 타고 25분가량 걸렸다.

입주민을 반기는 넓고 반듯한 게이트는 회색 석재 마감
으로 고급스럽게 처리돼 단정한 인상을 준다. 절제된 디자인
은 주변 건축물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양쪽으로 펼쳐진 고층 아파트 동들은 균형 잡힌 높이와
간격으로 배치돼 있어 도시적인 세련미와 함께 정돈된 분
위기를 자아낸다. 곳곳에 식재된 조경수와 녹음은 차가운
도시 건축 속에서 적절한 생기를 불어넣는다.

도마근시장, 대청병원,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등의 편
의시설을 비롯해 홈플러스, 코스트코, 세이백화점 등의
대형 쇼핑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옆으로는 도마네
거리, 계백로, 도산로 등 사통팔달의 도로 교통망을 갖췄
고, 호남고속도로, 통영대전고속도로 등의 진입이 용

이하다.

대전서남부터미널과 대전 지하철 1호선 서대전네거리
역도 인근에 위치해 있고,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신설
역도 계획돼 있어 교통여건은 더 좋아질 전망이다.

유원초가 단지 바로 맞은편에 있고 버드내중, 도마중,
대전제일고, 대신고 등도 가깝다. 대전과학기술대, 배재대
도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유등천이 인접해 수변산책로를
따라 가벼운 산책을 즐길 수 있다.

호반건설이 시공한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은 지하 4층
~지상 최고 35층, 11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1558가구
로 구성됐다. 단지에는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만의 조경
이 눈에 띄었다.

단지 중앙에는 박승모 작가의 작품 '환'이 설치돼 있다.
환이란 영사기에서 투과된 이미지라는 뜻으로, 호수에 숲
의 풍경이 드리워진 모습을 표현했다. 12겹의 스테인리스
스틸 철망을 중첩해 만들어 낸 작품은 명암의 대비가 돋보
인다. 작품 내부에 노란 빛의 조명효과로 화려한 야경 연
출과 더불어 단지를 더 고급스럽게 연출한다.

단지 내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 '중앙광장'이 보인다.
수려한 소나무로 둘러싸인 수경 중심의 상징적인 공간이
다. 절벽 형태의 석가산과 폭포, 자연형 연못을 가로지르
는 긴 보행석교를 거닐다 보면 고급스러운 리조트형 티하
우스가 보인다. 이 곳에 마련된 라탄소파에서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연못 옆에는 작품 '호수의 풍경'이 보인다. 청정한 호수
가장자리의 연 잎 사이로 물고기가 보금자리를 트는 형상



을 모티브로 했다. 쾌적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소
중함을 내재적으로 표현했다.

커뮤니티 센터에는 입주민들이 건강하고 여유로운 생
활을 보낼 수 있도록 스크린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사우
나, 키즈클럽, 작은도서관, 독서실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
됐다. 109동 지상 34층에는 대전 도심 파노라마 뷰를 한눈
에 담을 수 있는 스카이크뮤니티도 있다.

대전 최초로 삼성물산 에버랜드조경팀에서 푸른조경과
힐링공간을 설계시공한 단지답게 놀이공원을 방불케 하는
놀이터가 인상적이다. '이슈빌리지 놀이터'는 알록달록 동
화 속 상상의 세계가 펼쳐지는 환상의 놀이공간이다. 바닥
분수와 연계한 한 편의 동화같은 모습이다. '매직트리' 역
시 마법에 걸린 거대한 나무 위를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모
험의 공간이다. 다양한 슬라이더와 오르기네트 등 수직공
간으로 구성돼 있다.

에버랜드 내 판다월드 테마를 차용한 '판다월드 놀이
터'와 짙라인, 나무타기 및 암벽의 유기적 형태로 모험심
을 자극하는 '로스트밸리' 등 지형의 변화에 따라 놀이의
변형이 가능한 창의적 놀이공간이 갖춰져 있다.

/전지원 기자 jjw13@metroseoul.co.kr

